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① 준비물 체크 리스트

- (수험표/주민등록증)
- 마실 거리 (물·음료)
- 먹을 거리 (유통기한 확인)
- 손목 시계 + 테이프 (책상에 시계 부착)
- 컴퓨터 싸인펜
- 샤프/샤프심
- 볼펜
- 수정 테이프
- 치약/칫솔
- 물티슈
- 추가 개인 준비물 (상비약, 귀마개, 마스크 등)

② 행동강령 최종 정리

- A4 1~2장 준비
- 올해 틀렸던 문제들 꼭 훑어보며 행동강령 최종 정리
 - 행동강령 적는 법: A이면(A일 때) B하자.

ex)

[전체]
모든 글자를 읽을 때, 오독만 조심하자. 또박또박 읽자.

[독서]
세부 내용 나열되면, 핵심적인 흐름으로 요약하고 세부는 표시·메모로 처리하자.
→ 24.11 노자 주석서: 오징어의 핵심 논지 파악 후 세부 표시

[문학]
지문이 어려우면, 확실한 상황·심리 위주로 잡아내자.
→ 2206 무사와 악사: 결국 기범은 일규를 사랑했지만 상처받은 인물

[선지]
뭔가 헷갈리면, 명시적 근거를 차분하게 확인하자.
→ 1911 일동장유가: 자연물 비유 - 뇌피셜로 풀지 말고 근거 확인

③ 풀이 순서/시간 계획 최종 정리

- <풀이 순서(어떤 순서로 풀지) & 시간 계획(영역별 각 지문에 시간 얼마나 쓸지)> 최종 정리
- OMR 마킹 시간도 계획해둘 것
- 필요시, 모의고사 아무거나 뽑고 80분 시간 연습 (채점 X)

④ 시간 관리 가이드

- 1) Attention. 글을 읽을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작은 단위부터 끊어가며 하나씩, 차근차근 확보해나가지.
- 2) Big-mind. 웬만하면 답에 가까운 걸 찍고 넘어가자.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논증하는데 집착하지 말자.
- 3) Classify.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주저 없이 별표 친다. 일단 넘어간 다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보면 오히려 쉽게 풀린다.
- 4) Detailed. 문제를 검토할 때는 뇌피셜 돌리지 말고, 정답 선지에 한해 명시적 근거를 눈으로 확인한다.
- 5) Equal. 시간 계획을 엄수하자. 지문별로 계획한 시간을 넘기면, 그 즉시 남은 문제는 1분 이내에 찍도록 한다.

⑤ 멘탈 관리 가이드

- 1) 특별히 뭘 대단하게 하려 하지 말자. 평소 하던 대로 하되, 어이없는 실수만 조심하면 된다.
- 2) 긴장되고 떨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 볼 것 같은, 설렘을 느끼는 중인 것뿐이다.
- 3) 좀 거만해도 된다. '출제자 형님들 이번에 힘 좀 쓰셨네? ㄱ 근데 나님은 절대 막을 수 없으셈 ㄱ' 정도의 마인드가 좋겠다.
- 4) 잘 봤다고 인생 짱 피는 거 아니고, 못 봤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친구랑 게임 한 판 한다 생각하자.
- 5) 1교시 끝났으면, 미친듯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여겨라. 그리고 차분히 수학 단원화 노트 펴라.

⑥ 모의고사 이후 과제

- 1) 타인에게 채점을 부탁하거나, 온라인으로 채점한다. 특정 문제의 답이 뭔지 본인이 알 수 없어야 한다.
- 2) 해설지/강의 절대 보지 말고, 일단 며칠이 걸리든, 나만의 해설지를 만든다. 정오를 완벽하게 증명한다.
- 3)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답을 확인한다.
- 4) 처음이든, 해설지를 쓸 때든, 틀린 문제는 what why how 분석한다. 분석까지 끝낸 후 쌤에게 사진 찍어보내면 개인별 1:1 피드백 + 해설 강의 반영해준다.
(카톡 오픈 프로필 검색: 2025 예성국어)
- 5) 본인이 쓴 해설지 들고 와서 쌤의 해설강의 들으면서 감상한다. (자신의 해설지 위에 필기하며 수강)

예열 1_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로랜즈에 따르면 인지 과정이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 ① 로랜즈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 ② 로랜즈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 ③ 적절한 선지
- ④ 적절한 선지
- ⑤ 적절한 선지

1. 답은 ②. 파생적 상태는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이다. 따라서 암실 내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에 해당한다. 지문을 읽으며 제시되는 개념들은 ‘나의 말’로 바꾸어 읽어 주도록 하자. 그럼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예열 2_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학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 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땡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러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쫓쫓 이 앞아 청등(淸燈) 걸어 둔 곁에 공후(公后)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2. 답은 ④.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화자가 임(임금)이 계신 곳으로 보내고 싶은 대상이다. 따라서 신하(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라고 볼 수 없다. 항상 헛갈릴 때는 뇌피셜로 풀지 말고 명시적 근거를 잡아줘야 한다.